



맑았던 고성천에 원인모를 악취 진동

바다와 맞닿은 하천 하구
뿌연 물 고이고 찌꺼기도
주민들 “2년 전부터 반복”
제주시 “현장 조사할 것”

“찌꺼기에 뿌연 물이 고여있고 지나갈 때마다 시궁창 냄새가 나요.”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에 사는 주민 A씨(60대)는 지난 20일 지방 하천 고성천 하구에 있는 미수2교 다리를 지나가다 깜짝 놀랐다. 하귀리와 하귀2리를 잇는 고성천을 내려봤는데, 이를 전 비가 내렸을 때 비교적 깨끗했던 하천의 모습과는 달랐다. 뿌연 흙물이 흐르는데 물 위에 찌꺼기가 동동 떠 있었고 심한 악취까지 풍겨서다.

러한 현상을 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이 같은 현상이 2년여 전부터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비가 오면 조금 깨끗해지고 비가 갠 후에는 다시 저런 상태가 된다”며 “예전에는 비가 오면 냄새가 없어졌는데, 이제는 비가 와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심한 냄새가 계속 돼 행정에도 조사를 해달라고 계속 민원을 넣어봤지만 현장 확인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 답답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원인모를 악취에 고성천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날 오후 기자가 찾은 현장은 A씨의 말처럼 미수2교 다리 위에서도 뿌연 물과 악취가 나는 하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계단을 따라 하천 아래로 내려가니, 하천으로 연결된 우수관에서

물줄기가 떨어지고 있었다. 그 주변에는 알 수 없는 찌꺼기와 흙물이 흐르고 있었다.

건천인 이 곳은 관을 경계선으로 위쪽은 마른 상태였지만, 물이 나오는 관 주변 하천에는 탁하고 뿌연 물이 고여있었고 곳곳에 찌꺼기가 떠 있는 모습도 보였다. 또 이 곳은 바다와 맞닿은 하구였는데, 뿌연 물이 바다 쪽으로 길게 흐르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제주시는 이 곳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원인 파악을 하겠다고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빗물이나 도로의 부유물 등 하천으로 빠지는 것은 우수관이 연결돼 있다”며 “우선 현장을 찾아 육안으로 확인하고 판단이 어려우면 수질 검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소정기자 cosorona@ihalla.com



4·3희생자 추념식 아치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을 10여일 앞둔 22일 제주시 평화로 진입로에 홍보 아치가 설치되어 있다. 강희만기자

“아동안전지킴이집이 뭐하는 곳이에요?”

2008년 시행... 위급시 아동 보호·경찰 인계
경찰 교육·홍보 활동 미비로 도민 인식 저조

“아동안전지킴이집은 처음 들어요. 학교 근처에 그런 곳이 있는지 몰랐어요.”

22일 오전 제주시내의 한 학원가 근처에서 만난 현모(12)양은 아동안전지킴이집에 대해 묻자 이같이 말했다.

현 양은 “위험하면 부모님이나 112에 신고할 것 같다”며 “학교에서도 아동안전지킴이집에 대해 들이본 적은 없다”고 했다.

위험에 처한 아동을 임시로 보호하고 경찰에 인계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인근에 지정된 ‘아동안전지킴이집’ 제도가 정착 대상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에게조차 인식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강모(50)씨

는 “아동안전지킴이집이 옛날에는 많았던 것 같은데 요새는 잘 안 보인다. 홍보도 잘 안 돼서 지금 학부모 대부분은 모를 것”이라며 “아이들에게도 위험하면 얼른 전화하라고 하지,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도망치라고 가르치지는 않는다”고 했다.

2008년 경기 안양 초등생 유괴·살인 사건을 계기로 도입된 아동안전지킴이집 제도는 현재 학교 인근 문구점이나 편의점 등 업체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다.

제도 시행 첫해부터 아동안전지킴이집에 참여한 한 업주는 “경찰에서 교육이나 이런 건 이뤄지지 않고, 매년 접수된 사례가 있는지 관리는 하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위험 상황에서 아이들이 도움을 요

청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또 아동안전지킴이집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지만 검색이 쉽지 않았다. ‘제주’를 입력하자 업체명에 제주가 포함된 곳만 검색됐으며 현재 위치 근처에 있는 아동안전지킴이집 찾기도 불가능했다.

아동안전지킴이집 참여 업체 수도 제도 시행 초기보다 크게 줄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아동안전지킴이집은 251개소다. 2008년 도입 당시에는 462개 업체가 참여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연 2회 운영실태 점검과 함께 학교 통학로 주변 업체들을 대상으로 신규 위촉도 병행하고 있다”며 “우수사례가 있을 시 감사장 수여 등 적극적인 포상을 통해 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나흘 만에 또... 해안서 ‘차 봉지’ 마약류 발견

20일 대정 갯바위서 수거
작년 포함 총 20차례 발견

제주 해안가에서 ‘차(茶)’ 봉지에 담긴 마약 의심 물체가 또 발견됐다. 앞서 지난 16일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해안가 갯바위에서 마약 의심 물체를 확인한 이후 나흘만이다.

형태와 동일했다. 포장지 외부는 탈색되고 일부가 찢겨 내부에 소량의 물이 들어 있는 상태였다.

해경은 간이시험 결과 결과 신종 마약류인 케타민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정확한 성분검정을 위해 국과수에 정밀검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제주 해안에서 차 봉지 형태의 마약 의심 물체가 발견된 건 지난해 9월부터 이날까지 모두 20차례다. 제주시 제주항·애월읍·조천읍·구좌읍·용담동·우도면 해안가와 서귀포시 성산을 해안가 등에서 잇따라 발견돼 수거됐으며 그 양만 도 총 39kg에 이른다.

해경은 최근 해안가에서 마약 의심 물체가 잇따라 발견됨에 따라 추가수입 가능성에 대비해 당분간 집중 수색을 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해안가에서 차 봉지와 유사한 포장 형태의 의심 물체를 발견할 경우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접촉하지 말고 즉시 해경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당원 폭행 고소... 경찰 수사

정당 당원이 동료 당원을 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국민의힘 도당 모 위원회 위원장 A씨가 같은 당 또 다른 모 위원회 위원장 B씨에게 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최근 경찰에 접수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소정기자

아파트서 90대 추락 심정지

제주의 한 아파트에서 90대 남성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33분쯤 제주시 도남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사람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90대 남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신고자 등에 따르면 A씨는 2층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양유리기자

제주보건소 소독 의무대상시설·업소 점검 강화

제주보건소가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소독의무대상시설과 소독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법정 지도·점검과 함께 하반기 개최 예정인 전국체육대회에 대비해 다중이용시설의 위

생 수준을 높이고, 감염병 발생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점검 대상은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 식품점(객실수 300㎡ 이상) 등 다수가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소독의무대상 시설 1594개소와 소독업소로 신고

한 소독업소 129개소다.

시는 소독의무대상시설에 대한 소독 횟수 기준에 따른 정기 소독 실시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소독업소에 대해서는 시설·장비·인력 기준 준수 여부, 신고사항 변경 신고 이행 여부, 대표자 및 종사자 교육 이수 여부, 소독 기준 및 방법 준수 여부, 소독 관련 기록 보존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백금락기자

독자 제보 750-2232

그랜드보청기

‘2026년 병오년 고객 감사제’ 24시간 상담 / 히트브랜드 대상 수상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충전형 귀속형 보청기 충전형 귀걸이 보청기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살충제 훈제 전화 주선서! 기다렸습다!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향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 O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서사라 사거리 북동쪽 시청방면 1층 삼검구이 서광로 225 2층 제주시버스터미널 그랜드보청기

씨니트묘목분양

★ 만감류 - 씨니트 - 한라봉 2년 - 카라 2년 - 달콤, 미래향, 레드스타, 우리향, 맛나봉

‘씨니트’묘목 불법 유통 금지 안내

■ ‘씨니트’(품종보호 제6039호)는 「한라종묘」에서 품종보호권자 현성익(서귀포시 상효동)으로부터 2041년까지 전용실시권을 받은 품종입니다.

■ 이에 따라, 타 업체에서는 묘목을 생산·판매 할 수 없고, 농가에서도 씨니트 접순을 불법 채취해서 자가묘목, 고철, 접순 나눔 행위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한 종자업체 또는 농가에서는 저희 「한라종묘」로 연락을 주시면, 협의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불법 유통이 확인될 때에는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 다이마사키, 레드한라봉, 흥한라봉, 붉은한라봉 등은 (품종명이 아님) 생판신고, 안된 품종이며, 후에 씨니트로 밝혀지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유통한 묘목으로 생산된 과일은 씨니트란 이름으로 유통을 못합니다. (적발시 농가나 유통업자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유통 조치 현황 · 농가 : 42 농가 · 업체 : 3개 업체

한라종묘

종자업 등록번호 : 제18-서귀포-2005-20-01호

농장주소 :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000-3, 연락처 : 010-3696-2057

감골묘목

▲유라조생 2년생 4년생

▲천혜향 2년생 3년생

▲궁천 3년생

·황금향 ·레드향 ·한라봉

그외 다수 품종

최대규모 · 최고경력 · 근실육묘 35년

석파농산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주18-2003-20-08

☎010-2699-2355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 키폰 ·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설 (가립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